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인문한국3.0(HK3.0)지원사업 아젠다 발췌문

1. 연구 아젠다: 메디테이션 로드(Meditation Road)

-산스크리트권 명상 전통의 확산과 수용 및 변용-

본 연구소의 아젠다, ‘메디테이션 로드(Meditation Road): 산스크리트권 명상 전통의 확산과 수용 및 변용’은 인도의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기반으로 정립된 명상 전통이 페르시아와 아랍권, 동남아시아, 티벳, 중앙아시아, 중국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명권으로 전파되는 과정과 맥락, 사상적 재구성, 수행 체계의 변용 및 현대적 의의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먼저 인도 명상 전통이 페르시아와 이슬람권, 남아시아, 티벳, 중국 등 동아시아 및 서구세계로 확장되는 매개로서의 번역 작업과 재해석을 통한 변용을 다룰 것이다. 또한 명상 전통의 변용을 단순한 사상적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 수행법의 변화(특히 호흡 조절, 신체 기법, 의식 전환 방식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포함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통적 명상 체계가 현대 서구 및 한국 사회에서 재구성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스크리트, 페르시아어, 티벳어, 빠알리어, 한문 등 다양한 고전 자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되 문헌학, 지성사, 종교학 등을 아우르는 학제적 방법론을 적용한다. 인도 명상 전통이 확산되고 수용, 변용되는 길은 매개어의 경로는 (1) 산스크리트에서 페르시아어, (2) 페르시아어에서 라틴어, (3) 산스크리트에서 티벳, (4) 산스크리트에서 한문, (5) 산스크리트에서 빠알리어이다.

1) 서전(西傳): 페르시아, 아랍권 그리고 유럽

산스크리트로 기록된 철학·수행서들은 10-11세기의 이슬람 학자 알-비루니(Al-Bīrūnī, 973년-1048년)에 의해 아랍어로 번역 소개되었지만 획기적인 전환점은 이슬람 히즈라력(歷) 1067년 29일(서력 1657년 7월 8일), 다라 슈코흐(Dārā Shukōh, 1615-1659) 황태자의 주도로 『찬도기야』(Chāndogya), 『요가따트바』(Yogattattva)를 비롯한 50개의 우빠니샤드가 페르시아어로 번역되면서 부터이다. 페르시아어 번역본 『시르르-이 악바르』(Sirr-i Akbar: 위대한 비밀)의 서문에서 다라 슈코흐가 직접 밝혔듯이 페르시아어 번역의 목표는 새로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힌두의 브라만(Brahman)과 이슬람의 알라(Allah)의 동일성을 재차 드러내는 것’(Ganeri: 2012, 153)이었다. 따라서 산스크리트 문헌의 페르시아어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확산이 아니라 힌두와 이슬람의 근원적 동일성을 탐색하는 철학적 기획이자, 두 종교의 형이상학적 통합을 시도했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그 이후 11-17세기까지 페르시아어로 번역된 문헌은 50개의 우빠니샤드들 뿐만 아니라 『바가바드 기따』, 『마하바라타』, 『라마야나』와 같은

문학서를 비롯해서 특히 『고락샤샤따까』, 『비베까마르판다』 『요가스바로다야』, 『요가바시쉬타』 등 다수의 요가 문헌도 포함된다. 특히 *Baḥr al-Hayāt*(생명의 샘), *Pās-i Anfās*(호흡의 보존)와 같이 산스크리트로 된 요가 문헌이 페르시아와 아랍의 이슬람 사상으로 변용·재구성된 문헌도 현존한다(榑和良:2000, pp. 272-239, 2003, pp. 107-121). 페르시아 번역본은 단순히 페르시아와 아랍권에만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니다. 특히 『시르-이 악바르』에 수록된 50개의 우빠니샤드는 1801-1802년 앙크틸-뒤페롱(Anquetil-Duperron)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되어 1801-1802년에 *Oupnek'hat: id est, Secretum Tegendum*(『우빠니샤드: 감추어야 할 할 비밀』)로 출판되었다. 따라서 서전의 경로는 힌두와 이슬람, 이슬람, 기독교의 합류를 실증했던 사례이기도 하다.

2) 북전(北傳): 티벳,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북전(北傳)은 인도에서 성립한 명상 전통이 티벳,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동아시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번역과 종교적 통합을 통해 서로 다른 수행 체계로 재구성된 경로를 의미한다. 이 경로는 크게 동아시아 전개와 티벳 전개라는 두 축으로 나뉘며, 전자는 개념 번역과 철학적 재해석을, 후자는 수행 체계의 통합과 심화를 특징으로 한다.

동아시아 경로에서는 불교 명상 전통이 Silk Road를 따라 중국에 전래된 이후, 도가 및 유교 사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선(禪) 수행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명상은 해탈 중심의 수행에서 일상적 실천과 직관적 깨달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했고 그 일부는 도교의 기(氣) 중심적 수행으로, 그리고 유교에서 도덕적 자기 수행으로 융합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간화선(看話禪)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수행 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티벳 경로에서는 인도 대승 불교와 밀교 전통, 요가적 명상법이 결합되면서 집중 명상, 만트라 수행, 시각 명상 등이 통합된 수행 체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북전(北傳) 팀의 과제는 남아시아에서 발원한 명상 전통이 중앙아시아·티벳·동아시아로 전파되는 장기적 역사 과정을 문헌학·사본학·지성사·문화사·번역학의 통합적 방법론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3) 남전(南傳):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그리고 서구 세계와 한국

남전은 빠알리어 경전과 상좌부 불교 전통을 기반으로 전개된 명상 수행의 전파 경로를 가리킨다. 이 경로는 인도에서 형성된 수행 전통이 스리랑카에 정착한 뒤 미얀마·태국·라오스·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로 확산되고, 근현대에 다시 서구와 한국으로 전파되는 흐름을 포함한다. 남전 전통은 *Satipaṭṭhāna-sutta*, *Mahāsatipaṭṭhāna-sutta*, *Ānāpānasati-sutta*(, *Kāyagatāsati-sutta*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좌부 주석 전통으로는 *Papañcasūdanī*, *Sumangalavilāsinī*, *Sāratthappakāsinī* 등으로 전승되었고 붓다고사의 『청정도론』(*Visuddhimagga*)에서 보다 체계적인 수행론으로 집성되었다. 남전 전통은 19-20세기에 들어 전환점을 맞는다. 레디 사야도와 마하시 사야도, 고엔카, 아잔 차 등에 의해 사념처는 점차 위빠사나 수행의 핵심 실천 텍스트로 이해 되었고, 특히 미얀마 계열 전통에서는 관찰, 노팅(noting), 순간적 집중(*khaṇika samādhi*), 복부의 관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 체계가 부각되었다.

20세기 후반 이후 이러한 흐름은 IMS(Insight Meditation Society)와 Jon Kabat-Zinn의

MBSR(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을 중심으로 서구로 확산되었고, 명상은 종교적 해탈 수행의 범주를 넘어 심리치료와 정신건강의 실천으로 재맥락화되었다. 이에 따라 남전 연구는 상좌부 명상 전통이 동남아시아와 근현대 서구, 그리고 한국 사회를 거치며 어떻게 보존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명상 수행의 전파 및 재구성이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연구도 포함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서전(西傳): 페르시아, 아랍권 그리고 유럽

서전 팀은 페르시아어로 번역된 50 우빠니샤드를 비롯하여 『고락샤사따까』(*Gorakṣaśataka*), 『요가바시쉬타』(*Yogavasiṣṭha*) 등의 전승 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바하르 알 하야트』(*Baḥr al-Hayāt*, 생명의 샘)와 『파시 이 안파스』(*Pās-i Anfās*, 숨의 보존)와 같이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로 재구성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명상 전통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의의를 규명할 것이다.

2) 북전(北傳): 티벳, 중앙아시아, 중국

북전(北傳) 연구는 남아시아에서 발원한 명상 전통이 중앙아시아·티벳·동아시아로 전파되는 장기적 역사 과정을 문헌학·사본학·지성사·문화사·번역학의 통합적 방법론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 연구는 필사본의 물질성과 텍스트 전승에 대한 사본학적 정밀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고 산스크리트어, 길기트/바미얀 타입(*Gilgit/Bamiyan Type*), 티벳어, 한문 필사본, 인도·중앙아시아·돈황 출토 회귀 필사본의 서체·필기구·종이 재질·장정 방식 등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따라서 북전 팀은 원전 필사본의 전사(transliteration)와 비판교정본(critical edition) 작업을 수행하며 제 이본(異本) 간 구문 단위의 대조를 통해 텍스트의 변모,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오역과 창조적 재해석 등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3) 남전 및 서구권 명상 프로그램의 한국적 재해석과 비평

남전(南傳) 연구는 빠알리어로 전승된 『니까야』(*Nikāya*)와 주석서(*Aṭṭhakathā*), 『청정도론』(*Visuddhimagga*) 등의 문헌을 기반으로 형성된 명상 전통이 스리랑카와 미얀마·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근현대 서구와 한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문헌학·지성사·종교학 및 수용사의 방법론을 통해 규명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사띠(*sati*), 사마타(*samatha*), 위빠사나(*vipassanā*), 사마디(*samādhi*) 등 주요 수행 개념과 수행법의 의미와 맥락을 검토하고, 이들이 근현대 상좌부 명상 전통과 영어권 명상 및 현대 명상 프로그램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택·조정·재맥락화되었는지를 비교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수용 과정까지 살펴봄으로써 남전 명상 전통의 전승과 변용 양상을 규명할 것이다.